

2018회계연도 제3회 전북대학교 재정위원회 회의록

○ 일시 : 2018년 8월 21일(화요일) 14:00 ~ 14:35

○ 장소 : 대학본부 8층 회의실

○ 회순

1. 개회 2. 국민의례 3. 위원장 인사 4. 위원장 개회 선언 5. 안건상정 6. 폐회

○ 참석자 : 한길석, 김재민, 고동호, 이철로, 이동호, 김학용, 손재권, 한상욱, 조호성, 박미순, 박진, 조춘신 위원

○ 불참자 : 박주미, 장환석, 김새봄 위원

○ 상정안건

- 2018년도 대학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안

간 사 :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제3회 전북대학교 재정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백유선)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국민의례를 마친 후) 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진행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 오늘 재정위원회는 구성원 15명 중 12명이 참석하여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한길석)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의사 정족수에 달했으므로 성원이 되어 개최됨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따라 「2018년도 대학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안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제안 설명자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 배포된 회의 자료에 의거 「2018년도 대학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안 건」에 대하여 설명함.

(박성일)

위원장 : 제안자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한길석) 본 안건 관련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원 :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한상욱) 조교연구성과금으로 1.2억이 반영되었는데 어떻게 평가해서 조교들에게 지급이 되는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 해당 부서인 교무과에서 교육부 지침에 따라 지급할 예정입니다.

(박성일)

위 원 : 아직 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것인가요?

(한상욱)

위 원 : 현재 지침은 있으며, 전체 조교들에게 지급 비율 등 의견을 물어 가장 많이 나온 의견 (고동호)으로 성과금 등급을 책정할 예정입니다.

위 원 : 조교를 평가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한상욱)

위 원 : 평가는 부서장이 할 것이며, 기준은 추후 마련할 예정입니다.

(고동호)

위 원 : 조교들이 차별받지 않고 공정하게 평가를 받아서 지급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상욱)

위 원 :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상욱)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이 47.5억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한 이유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이 국립대학 육성사업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 예산을 삭감하고 국립대학 육성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위 원 : 제가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국립대학 육성사업 평가를 받았는데 국립대학 중에 최고 점수를 받아서 이번 년도에 예산을 더 교부받았습니다.

위 원 : K-MOOC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대학에서 유치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지만, 교육 측면에서는 인터넷 강의이기 때문에 교수님들도 제대로 강의를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학생들도 강의를 듣지 않고 학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전공 수업도 K-MOOC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K-MOOC사업이 확대되면 대학 대면교육의 한계 또는 제한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부의 K-MOOC사업에 대한 소견이 궁금합니다.

재무과장 : 올해 K-MOOC사업은 재작년,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성일) 그리고 정부에서 K-MOOC사업을 확대하려면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들을 것입니다. 이때 위원님의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원 : 우리 대학에서 교수님들의 연구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저널을 구입할 수 있는 도서구입비 등으로 예산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아니면 국립대학 육성사업이 7억정도 증액되었는데 이 예산으로 반영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무과장 : 국립대학 육성사업 예산집행 방향 결정은 해당 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 국립대학 육성사업 예산이 확대된다면 해당 부서와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원 : 이공계 학생들의 실험실습비가 오랫동안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대학 차원에서는 해결하지 못할 것 같고, 정부차원에서 방안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험실습비에 관련된 대책 또는 예산 증액 및 현실화 시키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무과장 : 저번 회의 때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셔서 실험실습기자재확충사업 예산에 자산취득비 뿐만 아니라 수선유지비도 편성하여 학생들의 실험실습비로 쓸 수 있도록 교육부에 건의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교육부에서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 원 : 실험실습기자재확충비와 실험실습비는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실험실습기자재확충비로 실험실습비를 쓴다면 많은 교수님들이 당연히 반대할 것 같고, 다른 예산으로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당장은 쉽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꼭 해결해야 할 문제로 생각됩니다.

재무과장 :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성일)

위 원 :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면 학생들에게 혜택이 가는 예산이 보이질 않습니다. 학습 환경 개선 또는 장학금 지급 등 대학의 미래를 위하여 투자할 계획은 없는 것인지요?

재무과장: 제1회 추가경정예산때 일체형 책결상 교체 예산 3억을 반영하여 여름 방학 전에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사업으로 강의실 빔프로젝터, 전자교탁 교체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교육부에서도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주었습니다.

위 원: 학생들을 위하여 추경예산에 지속적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해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중앙이전수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수입인가요? 교육부에서 교부하는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입니다.

(박성일)

위 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기타수입은 어떤 수입인가요?

(한상욱)

재무과장: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전북도청, 전주시청, 전북교육청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는 수입이며, 기타수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한국연구재단, 대교협 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는 수입입니다.

위 원: 기타수입에서 받은 사업비로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 등 학생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현재 CK사업이나 CORE사업에서 학생들에게 상당히 많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성일)

위원장: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 있습니까?

(한길석)

위원들: 없습니다.

위원장: 어느 정도 의견이 수렴된 거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동의하여 주신다면 거수로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위원들: 동의합니다.

위원장: 먼저 상정 안건에 대하여 찬성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길석)

위원들: 전원 찬성

위원장: 표결 결과 전원 찬성으로 상정된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길석)

위원장: 본 회의를 마치기 전에 기타사항 협의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의거 회의록 서명을 출석 위원 전원이 하여야 하나 단 서조항에서 출석위원 중 3인을 호선하여 회의록에 대표로 간(間)서명할 수 있기에 대표자 3인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간(間)서명하실 대표 위원 3인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2회 재정위원회 시에는 한상욱, 장환석, 박진 위원께서 수고해주셨습니다. 간(間)서명하실 대표위원 3인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한상욱, 박미순, 박진 위원께서 수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회의록 간서명 위원으로 한상욱, 박미순, 박진 위원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제3회 전북대학교 재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작성일 : 2018. 8. 22.(수)

위 원 장 : 한 길 석 (인) 
간 사 : 백 유 선 (인) 
기 록 자 : 강 현 창 (인) 



박 신